

소메론[®]
(메틸프레드니솔론)

부신호르몬제

소메론[®]
(메틸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 및 그 분량】 1정 중
유효성분 : 메틸프레드니솔론(KP) 4.0mg
첨가제(동물유래) : 유당수화물(소, 우유)
기타첨가제 : 스테아르산칼슘, 옥수수전분, 전분글리콜산나트륨

【성 상】 흰색의 원형 정제

【효능·효과】

- 내분비 장애 : 원발성 및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부전증(히드코르티손이나 코르티손이 1차 선택 약물이며, 필요한 경우 광질코르티코이드와 병용해서 합성 코르티코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특히 영아기에는 광질코르티코이드를 병용하는 것이 중요함), 선천성 부신이상 증식, 임에 수반된 고알슘혈증, 비하농성 갑상선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급성진행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투여용 보조요법으로서 다음의 질환 : 외상 후 골관절염, 골관절염의 활막염, 연소성 류마티스양 관절염을 포함하는 류마티스양 관절염(경우에 따라서는 저용량 유지요법이 필요할 수도 있음), 급성 및 아급성 점액낭염, 상과염, 급성 비특이성 건초염, 급성 통풍성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갑상선 척추염
- 고환성 질환
악화 중에 있거나 유지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피부 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발발성 피부염, 수포성 속발성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공상성 육종
- 알레르기성 질환
중증 또는 불응을 초래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치료로는 반응이 없는 다음의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안과 질환
중증 급만성 알레르기성 또는 염증성으로 는 및 그 부속기관에 관련되는 다음의 질환 : 안대상포진, 홍채염 및 홍채모양체염, 맥락막박막, 후부의 신생성 포도막염 및 맥락막염, 사신경염, 고각상신경성 안염, 전방의 염증, 알레르기성 결막염, 알레르기성 각막부주위염, 각막염
- 위장관계 질환
경정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다음의 질환 : 궤양성 대장염, 국한성 장염
- 호흡기계 질환 : 중증성 사르코이드증, 폐렴률 증축증, 전격성 또는 파충성 인 폐결핵(적절한 항결핵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 다른 방법으로 낫지 않는 폐렴률 증축군, 흡인성 폐염
- 혈액 질환 : 후천성(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성인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성인의 속발성 혈소판 감소증, 적아구감소증(적혈구 빈혈), 선천성 적혈구 형성 부전성 빈혈
- 악성 종양성 질환
다음 질환의 고식적 관리 : 소아의 급성 백혈병, 성인의 백혈병 및 임파종
- 부종성 질환 : 요독 증상이 없는 특발성 신증후 또는 홍반성 루푸스로 인한 신증후에 있어서 다배증가의 유도 및 단백뇨의 완화
- 신경계 질환 :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악화
- 기타 : 결핵성 수막염(지주막하의 차단상태 또는 차단이 우려되는 경우)로 서, 적절한 항결핵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 선모충증(신경성 또는 심근성 합병증이 수반된 경우)

- 초기 복용량은 특정 질병의 중증에 따라 메틸프레드니솔론으로서 1일 4mg에서 48mg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용량으로 충분한, 특별한 환자에서는 초기 고용량이 요구될 수도 있다. 초기 용량은 만족스러운 반응이 얻어질 때까지 유지되거나 조정되어야만 한다. 만약 한달만 기간 후에도 만족스러운 임상 결과가 없다면 투여를 중지하고 다른 적절한 치료로 전환하여야 한다. 용량은 치료하는 다양한 질병과 환자의 반응증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반응이 나타난 후에는 적절한 임상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서서히 낮추는 간격으로 초기용량을 감소시키므로 적절한 유지용량을 결정해야 한다. 용량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질병의 경감이나 악화, 환자 개 개인의 약물 반응성, 치료하는 질병의 중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환자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환자의 상태에 만족스러운 만큼의 기간동안 용량을 증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장기간 치료 후 약물의 중지시 천천히 감소하는 것이 요망된다.
-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 악화의 치료는 1주일간 프레드니솔론 200mg을 매일 투여한 후 1일 동안 각일로 프레드니솔론 80mg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메틸프레드니솔론 4mg은 프레드니솔론 5mg과 같다).
- ADT(Alternate Day Therapy :격일치료)
격일치료란 이들 중 하루아침에 1일 용량의 2배를 투여하는 용법이다. 이 용법의 목적은 장기간 약물투여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코르티코이드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뇌하수체-부신의 역조, 쿠싱양 상태(Cushingoid state), 코르티코이드 급단 증상과 소아의 성장 억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치료계획의 이로운 다음 2가지 중요한 전제에 기초한다.
1) 코르티코이드의 항염증 효과와 치료 효과가 물리적인 존재와 대조효과보다 더욱 지속되고
2) 격일로 아침에 코르티코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지 않은 날 거의 정상적인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Hypothalamus-pituitary-adrenal : HPA)활성의 재형성을 가져온다. HPA 생리에 대한 간단한 요약은 이러한 이론적 해석의 이해를 도울것 수 있다. 우리 코르티솔은 주로 시상하부를 통해 작용하므로 우리 코르티솔의 감소는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부신피질자극호르몬(ACTH)의 생산을 증가시키는 반면, 우리 코르티솔의 상승은 ACTH분비를 억제한다. 정상적으로 HPA계는 24시간 동안 활동리듬으로 특정 지워진다. ACTH의 혈장치는 오후 10시의 낮은 수준에서 오전 6시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다. ACTH의 증가 수준은 부신피질 활동을 자극하여 오전 2-8시 사이에 혈장 코르티솔을 최고로 증가시키게 한다. 코르티솔의 이런 증가는 ACTH 생성을 감소시키고 따라서 부신피질활성도 저하시킨다. 이것은 하루동안에 혈장 코르티코이드를 점차로 저하시켜 한밤중에는 최소수준으로 저하된다. HPA의 24시간 리듬축이 쿠싱질환(Cushing's disease)에서는 없어지는데, 이 질환은 구식

성의 지방분포를 가진 비만, 쉽게 멍이 드는 얇은 피부, 약하고 근육이 줄어들고, 고혈압, 잠재성의 당뇨병, 골다공증, 전해질 불균형 등으로 특정 지워지는 부신피질 과기능증의 증상이다. 같은 부신피질기능항진증(Hyperadrenocorticism)의 임상증상이 전형적으로 하루에 나누어 투여하는 장기 약물 코르티코이드 요법 동안에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이 나타났다면 밤 동안의 상승된 코르티코이드치의 유지로 인한 주간 리듬의 혼란이 코르티코이드의 부작용을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짧은 기간동안이라도 지속적으로 상승된 혈장 농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전형적인 약물학적 용량의 코르티코이드 요법동안, 부신 피질에 의한 코르티솔의 생성 억제와 함께 ACTH 생성도 억제된다. 정상적인 HPA활성으로의 회복시간은 용량과 치료기간에 따라 다양하다. 이 기간동안 환자는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는 환경에도 민감하다. 아침 1회복용이 프레드니솔론(10mg)을 하루 4회에 나누어 매 6시간마다 복용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부신 억제를 나타낸다고 할 지라도, 약물학적인 용량을 사용했을 경우 부신활성에 약간의 억제효과가 그 다음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 게다가 어떠한 코르티코이드의 단 회 투여는 2일 또는 그 이상까지도 부신 피질의 억제가 보어진다. 메틸프레드니솔론, 히드코르티손, 프레드니손, 프레드니솔론을 포함하는 다른 코르티코이드는 단기간 작용(1회 투여로 1%에서 1½일 동안 부신피질억제가 나타남)으로 간주되어지고 따라서 격일치료가 요망된다.

다음의 사항들은 격일 치료를 할 때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 코르티코이드의 요법에 있어 기본적인 원칙과 적응증을 적용시켜야 한다. ADT의 장점이 코르티코이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겨서는 안된다.
- ADT는 장기 약물 코르티코이드 치료를 요망하는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하는 치료기술이다.
- 코르티코이드 요법의 적응증을 갖는 덜 심각한 질병에 있어서는 ADT가 초기에 사용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질환에서는 질병진행의 초기 조절을 위해 고용량을 하루에 나누어 투여하는 요법이 보통 요구되어질 것이다. 초기 억제 용량치는 만족할 만한 임상반응을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하는데 보통 많은 일례까지도 고환성 질환에 있어 4일에서 10일 동안이다. 특히 격일 요법의 지속적인 사용을 의도한다면, 가능한 한 짧은 기간동안의 초기 억제 용량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통제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① ADT로 전환하고 격일에 주어지는 코르티코이드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여준다.
② 질병 진행의 조절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최소 효과값으로 코르티코이드의 1일 용량을 감소시키고 난 후 격일 일정으로 변화시킨다. 이론적으로 이것은 피로가 더욱 바람직하다.
- ADT의 장점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매일 코르티코이드를 복용해온 환자에게 이러한 형태의 치료는 바람직하다(예를 들어 류마티스양 관절염). 이러한 환자는 이미 HPA축이 억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ADT요법을 확립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경하려는 규칙적인 시도도 추천된다.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단지 매일 용량의 2배를 하는 것보다는 격일로 3배 심지어 4배로 투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환자가 통제가 되면, 이러한 용량을 최저로 감소하는 시도를 한다.
-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떠한 코르티코이드는 부신기능을 오랫동안 억제하기 때문에 격일 요법으로 추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덱사메타손, 베타메타손).
- 부신 피질의 최대 활동은 아침 2시에서 8시까지, 최저는 오후 4시에서 자정까지이다. 최대 활동의 시간대에 투여되어야 할 때이므로, 위상성 코르티코이드는 부신피질 활동을 가장 적게 억제한다.
- ADT사용에 있어서, 모든 치료환경에서처럼, 각 환자에게 있어 개인화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환자에게 있어 증상의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 ADT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환자에게 코르티코이드제를 투여하지 않은 날의 후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불안전한 증상을 이해하고 참아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이 기간 동안 다른 증상 치료 방법(수증기나 수증기)을 시도할 수 있다.
- 질병진행중 급성악화가 나타난다면 조절을 위하여 코르티코이드 용량을 하루에 나누어 완전히 억제하는 용량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일단 조절이 된 후에는 서서히 격일 요법으로 재시도할 수 있다.
- 많은 코르티코이드 요법의 부작용들이 ADT로서 최소화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치료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코르티코이드 치료가 생길되는 각 환자에 있어 치료 이익성과 위험성의 비율을 신중히 고려해야만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 이 약 또는 이 약 성분에 과민증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
- 유효한 항균제가 없는 감염증, 전신 진균 감염증 환자(면역계의 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단순포진, 대상포진, 수두 환자
- 생백신 또는 약독 생백신을 투여중인 환자
- 이 약은 유당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갈락토오스 불내성(galactose intolerance), 락프 유당분해효소 결핍증(Lapp lactase deficiency) 또는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glucose-galactose malabsorption) 등의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면 안된다.

2.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 투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환자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① 녹내장 환자(안압이 상승하여 녹내장이 악화될 수 있다)
- 결핵성 질환, 단순포진성 각막염 환자(면역 억제작용에 의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후방하 백내장 환자(수정체선유 의 영향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전해질이상 환자, 고혈압 환자(전해질 대사작용에 의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혈전증 환자(혈액응고촉진작용에 의해 혈전증이 악화될 수 있다)
- 최근 장문합을 받은 환자(상처 치유 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
- 급성신경근색을 일으킨 적이 있는 환자(심근마염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 게실형 환자

- 소화성 궤양 환자(소화관 보호작용을 감약시키고, 조직의 수축을 방해하므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정신병 환자(대뇌절연체의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주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중증 골다공증 환자(골형성 억제작용 등에 의해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다)
- 감염증이 있는 환자(면역계의 억제작용에 의해 감염증들을 악화시킬 수 있다)
- 당뇨병 환자(당신장작용에 의해 혈당치가 상승하여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다)
- 골다공증 환자(골형성 억제작용 등에 의해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다)
- 신부전, 용혈성 심부전 환자(나트륨 저류작용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감상신기능저하증 환자(코르티코이드의 혈중 반감기가 연장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 지방간(간간에 지방 침착이 증가하여 지방간이 악화될 수 있다)
- 지방색전증 환자(코르티코이드 과량투여에 의해 지방 색전증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 중증 근무력증 환자(사용초기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 고령자
- 간질 환자
- 궤양성 대장염(천공, 농양 또는 기타 화농성 감염증이 유발될 수 있는) 환자
- 골다공증, 고혈압, 용혈성 심부전, 심각한 갑상선성, 당뇨병, 결핵, 녹내장, 간 장애, 뇌수전, 간질, 소화성 궤양의 병력이 있는 환자(병이 악화될 수 있다)

3. 부작용

다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관찰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경우에는 적절한 처치를 한다.

- 체액·전해질 : 부종, 나트륨저류, 칼륨손실, 체액저류, 저칼륨성 일탈리혈증, 갑수성 환자에서 있어서 용혈성 심부전, 고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근·골격계 : 근무력증, 대퇴골 및 상완골 말단의 무골성 골사, 스테로이드성 근병증, 근육소실의 손실, 장골의 병리적 골절, 골다공증, 척추압박 골절, 관절염, 건파열(특히 아킬레스건)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소화기계 : ALT, AST, ALP 증가, 구역, 구갈, 구토, 위류, 식욕부진, 식욕 항진, 천공 및 출혈의 가능성이 있는 소화성 궤양, 복부팽만감, 헤장염, 궤양성 식도염,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피부 : 창상치유지연, 안면 홍반, 알고 연약한 피부, 발한 이상, 점상출혈 및 반상출혈, 피부박양의 억제현상, 자반, 여드름, 다모, 탈모, 색소 침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정신·신경계 : 치료 후 일어나는 유두부종(가비종양)을 수반한 두개내압 증상, 경련, 어지러움, 두통, 불면, 다형한,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내분비계 : 쿠싱증후군(월상인), 월경 이상, 소아의 성장억제, 잠재성 당뇨병 증상의 발현, 속발성 부신기능부전과 뇌하수체 무반응(특히 외상, 수술, 질병시 등 스트레스), 내당력 감소,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인슐린 또는 경구용 혈당강화제의 요구량 증가, 부신피질자극호르몬 분비 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눈 : 영문에 의해 안압항진, 녹내장, 후방하 백내장, 공막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눈의 2차 감염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심성 망막성 맥락막막증 등에 의해 망막장애, 안구돌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지질·단백질 대사 : 단백질화작용으로 인한 음성질소평형이 나타날 수 있다.
- 면역계 : 면역계 장애, 정맥내 사용시 알레르기 반응, 드물게 속까지 일어날 수 있다.
- 기타 : 코르티코이드 요법과 관련하여 경우와 비경구 투여시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바 있다.
- 두드러기, 기타 다른 알레르기성 반응, 아나필락시 반응, 과민성 반응

4. 일반적 주의

- 장기투여시 속발성 부신피질부전이 나타날 수 있으며, 투여 중지 후 수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다. 장기 투여 후 코르티코이드를 갑자기 중지하면 급성부전성 위기, 가급 발달, 두통, 식욕부진, 무력감, 근육통, 관절염, 속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감량하는 등 특히 주의하여, 급단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대처여 또는 중량한다. 장기 투여 외상, 수술, 감염 등의 스트레스 발생시 일시적으로 투여량을 증가해야 한다. 장기 투여 후 투여 중지상태면 경우에 일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한다. 광질코르티코이드 분비가 손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염분 또는 광질코르티코이드를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장기 치료시 위험도를 고려한 후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부작용은 투여량, 투여기간과 상관성을 나타내므로 최소 유효량을 되도록 단기간 투여하여 1일 1회 아침에 투여하거나 격일 투여가 권장된다.
- 면역억제제를 투여중인 환자(소아)는 건강한 사람(소아)보다 감염되기 쉽다. 예를 들어 수두나 홍역은 면역억제제인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한 환자에서 더 심각하게나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을 알아 보지 않는 성인 및 소아의 경우 이러한 것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만일 수두에 노출되면 3일~10일 이내 수두대상성 전 면역글로불린(VZIG), 홍역에 노출되면 면역글로불린(G) 같은 예방치치가 필요하다. 수두가 발생되면 항바이러스약을 사용이 고려된다.
- 코르티코이드 요법을 받는 환자는 생백신을 투여 받으면 안되며, 신경학적 합병증의 가능성과 환자반응의 결함으로 인하여 특히 고용량으로 코르티코이드를 투여중인 환자는 기타의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아야 한다.
-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면 감염증의 증상을 때때로 불현상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또 다른 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코르티코이드 투여 중에 는 감염을 국소화시키는 능력과 저항력이 저하될 수 있다.
- 활동성 결핵환자에 이 약의 투여는 전격성, 파충성 결핵에 한정되어 적절한 항결핵요법제와 병용투여한다.
- 장복성 결핵 환자 또는 투베르쿨린 반응 양성 환자에게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할 경우 결핵이 재발성화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장기 면역학 경우에는 예방적 화학요법을 받아야 한다.
- 임상시험에서 코르티코이드가 다발성 경화증의 급성악화를 신속하게 경감시키는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히드로코르티손 또는 코르티손의 평균용량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할 경우 혈압상승, 염과 분비의 저류, 칼륨배설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과잉 투여시 이외에는 한성유도제로 인한 이런 작용이 나타날 염려가 없다. 염색을 성취시 염제제와 칼륨보충에 필요할 수 있다. 모든 코르티코이드는 칼슘배설을 증가시킨다.
- 특히, 이 약 투여중에 수두 또는 홍역에 감염되면, 치명적인 경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 이 약 투여전에 수두 또는 홍역의 병력과 예방접종의 유무를 확인한다.
- 수두 또는 홍역의 병력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수두 또는 홍역의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여 충분한 배려와 관찰을 한다. 감염이 의심스러운 경우와 감염된 경우에는 즉시 진찰을 받아 지도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다.
- 수두 또는 홍역의 병력과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서도 이 약 투여중에 수두 또는 홍역이 나타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한다.

5. 상호작용

- 다형성 심실 빈맥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아스테미졸, 베르피릴, 에리스로마시인 IV, 할로판트린, 펜타미딘, 스파르클록사신, 빈카민, 설트프리드)과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다형성 심실 빈맥을 일으킬 수 있는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디소피라미드, 퀴니딘, 소탈몰)와의 병용에 의해 서맥, QT 간격 연장, 저칼륨혈증 등이 나타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히 투여하고 심실 빈맥이 나타나면 항부정맥제 투여를 중지한다.
- 바르비탈계 약물(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리페미신, 카바마제핀, 프리미돈, 아미노글루테지미드, 리파부틴과 병용투여에 의해 이 약의 작용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용량에 주의한다.
-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병용투여시 위장관 궤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스피린과 병용투여시 아스피린의 신장소홀을 증가시켜 살리실 신염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이 약을 중단했을 때 살리실신염의 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용량에 주의한다. 특히 자프트로트빈혈증 환자에서 이 약의 아스피린을 병용투여시 주의한다.
- 항응고제, 혈당강화제의 경우 코르티코이드와의 병용투여에 의해 그 작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 아노제칼륨보존성 이뇨제는 제외, 알포테리신 B, 카르베노론, 완화제와 병용에 의해 저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주 혈중 칼륨농도를 검사하고 병용투여시 용량에 주의한다.
- 디기탈리스 배당체와 병용투여시 부정맥, 저칼륨혈증과 관련된 독성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혈중 칼륨농도를 검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다.
- 이소니아지드와 병용투여시 이소니아지드의 혈중농도가 감소하므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 제산제는 당질코르티코이드의 위장관 흡수를 방해하므로 투여간격을 2 시간 이상으로 한다.
- 혈압강화제와 병용투여시 혈압강화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나트륨 증가로 수분정체 위험이 있다).
- 알파나비티페론과 병용투여시 인터페론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다.
- 사이클로스포린과 병용투여시 사이클로스포린의 혈중농도를 상승시켜 경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용량에 주의한다.
- 케토라콜, 에리스로마시인, 트클레안도마시인, 에스트로겐은 이 약의 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용량조절에 주의한다.
- 비발분성성 근이완제(브롤파칸비올 등)와 병용에 의해 근이완 작용이 감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시 용량에 주의한다.
- ACE억제제와의 병용에 의해 혈액성 변화 발생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클로로말, 히도트스킬로로로과과의 병용에 의해 근병증, 심근증 발생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소마트로핀과의 병용에 의해 소마트로핀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6.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 작용이 보고되어 있으며 태아의 성장지체, 인형이의 위험 등의 증가, 태아의 뇌성장 및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임신 중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한 모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부신 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한다.
- 코르티코이드는 모유중으로 이행될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 중에는 수유를 중단한다.

7. 소아에 대한 투여

- 소아 및 청소년기에서 용량 관련 성장지체가 비가역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아에 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할 경우에는 최소용량을 투여해야 하며 발육상장애에 관해 주의깊게 관찰한다.
- 장기 투여한 경우 두개내압 항진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8. 고령자에 대한 투여

- 고령자에 장기 투여한 경우, 감염증의 유발, 당뇨병, 골다공증, 고혈압, 후방하 백내장, 녹내장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충분히 관찰하여 신중히 투여한다.

9. 기타

- β₂-효소제와 병용에 의해 저칼륨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
- 외국에서 사군 백신과 불활성화 백신의 효과가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 코르티코이드의 투여로 피부시험반응이 억제될 수 있으므로 이 약 투여 중 피부시험을 할 때는 주의한다.
- 외국에서 가비 중양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다.
- 코르티코이드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카포시육종이 보고된 바 있다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보관(1~30℃)

【사용기간】 제조일로부터 36개월

【포장단위】 30정/병, 100정/병, 500정/병, 수출용 : 100정(10정/PTPx10)

※ 올바른 사용법을 모르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 후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에 관련된 문의는 소비자상담전화 : 02)2182-04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입시 사용(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변질, 변패 또는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제품인 경우 복용(사용)하지 마시고 구입처에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첨부문서의 변경된 최신내용은 당사 소비자상담실 또는 식물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약(http://drug.mid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